



1

プリントアウトした請求票は、所蔵部署階のカウンターにお持ちください

2010年12月30日 20:17:41

2010年12月30日 20:17:42

入館証番号:

[Empty box for library card number]

入館証番号:

[Empty box for library card number]

Call Slip

<請求票>

Call Slip

2216
42
3-1

<請求票> (控)

書名
資料名: 最新の韓国事情 (旧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巻次:
著者名: 岡庸一 // 著
出版者: 亜細亜文化社
出版年: 1985.1
大きさ: 24cm
頁数: 28,1157p

資料名: 最新の韓国事情 (旧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巻次:

著者名: 岡庸一 // 著

出版者: 亜細亜文化社 頁数: 28,1157p

大きさ: 24cm 出版年: 1985.1

所蔵館: 中央

所蔵部署: 1階資料お渡し・返却カウンター

配置場所: 1/66A 中)B1書庫A

資料ID: 1123173385

一社人自東新	力	事
↓		
一社人自東新	請求	報告
MB1 マイカ B1 7ル7アット 原紙 縮刷		
MB2 マイカ B2 洋 中 朝		
行 1F B1 B2		
多 児 青 1F B1 B2		

所蔵館: 中央

所蔵部署: 1階資料お渡し・返却カウンター

配置場所: 1/66A 中)B1書庫A

資料ID: 1123173385

請求記号
2216
42
3-1

序
P.1 - 28

目次
P.1 - 12

本文
P.1 ~ 9.

刊行辭

歷史에 있어서 現在란 연속하여 흐르는 過去로부터의 한 時點에 불과하다. 西歐의
우들이 르네상스나 産業革命의 湧해속에서 존재되어 왔던 것과 같이 우리의 現在도 李朝社
會의 複合的 相關性이나 韓末에 격동이 相乘되어 흘러온 支流에 본 바탕이 있음을 認識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李朝財政의 近代化過程을 분석하면서 本人의 研究過程
에서 系統적으로 조정된 것이 있었으며 當時부터 우리의 現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李朝末期
의 면밀한 研究를 통하여 定立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 왔다. 그러나 當時의 記錄은 저
어도 全體에 照明될 만 큼 體系的으로 理解하고 그 命脈을 確연히 區分하는 作業自體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皮상적인 정치상황이나 經濟指標의 次元을 넘어 社會의 構造的特
性이나 普遍的 思考의 變化가 計量的이며 可測性있는 데이터로서 表面化되는 客觀化된 記錄은
가려내어야 하는 作業은 한 時代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明確한 觀點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舊韓末의 資料를 再照明하는 必要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
나 近來에 와서 韓國近代史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漸高되어 가고 그 研究結果도 상당한 수
준에 이르렀음에 따라 史料로서의 基盤이나 分析對象으로서의 데이터의 整理가 질실하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그것은 現象의 올바른 理解와 近代史의 客觀적이며 明確한

2216
42
3-1

연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고 여겨졌다. 대체로 후란기의 舊韓國末期는 外侵의 피해로 연
 복진 民族의 苦亂史였던 만큼 감정적인 分析이 지배되기 쉽다. 日本의 침략이
 후복하였던 만큼 그에 대한 비판 역시 가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韓國에 대한 記錄은
 侵略을 위한 기본자료로 쓰이고자 작성된 것이나 특히 財政經濟資料에 있어서는 명혹할 만
 큼 事實의이며 客觀的이었다. 한 나라의 民族性을 理解하고자 또한 한 나라의 國土를 수탈하고자 연
 마만큼 많은 財政과 學者를 投入하여 村落構造에서 姓氏發生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간 신앙
 에서 풍속과 관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가 행하여졌던가 이러한 調査가 없었다면 그들의
 侵略이 이처럼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記錄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再分析하고 批判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된다. 당시에 많은 外國人이 한국에 관하여 記述한 資料가 있으며 비록 최종의 목적은 李
 朝王國의 崩괴를 획책하였더라도 事實의 分析은 그 次元을 달리하였던 事實에 注目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망서리기만 한 舊韓末日帝侵略史料를 一次的으로 集成하여 한자리에 모아 연구
 에 편리하도록 편성하였다. 이 分野에 명철한 史觀이 확립되고 해박한 知識으로 통일하신 여
 러 學者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를 귀중한 資料가 아질도 그날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
 토록 많은 자료중에서 여기 상梓되는 基本史料가 가려진 것만으로도 해묵은 疇를 벗은 것 같
 은 느낌이 든다. 앞으로 이들 史料의 調査는 더욱 깊고 넓게 진행될 것이다. 적어도 이 時代
 의 가장 巨요한 資料로서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를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刊行辭로서
 代하고저 한다.

一九八四年 五月 日

韓國學文獻研究所長
 李 昌 世

序 文

이 舊韓末日帝侵略史料整理事業은 韓國의 近代化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비록 日帝가 韓國을 侵略하기 爲하여 試圖한 資料이기는 하지만 無庸을 수 없는 貴重한 資料인 줄로 믿어진다. 이 劃期的인 事業에 즈음하여 近代化에 關해 나름대로의 몇가지 自體問題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事實 韓國의 近代化는 日帝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挫折되고 解放의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韓國의 近代化過程에서 생각해 할 우리 自體가 가지고 있던 問題란 무엇인가 말이나.

그 가장 重要한 問題는 韓國에는 日本이나 유럽에서 經驗한 것과 같은 典型的인 封建制度가 發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支配階級으로 兩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社會的特權은 있었으나 日本이나 유럽에서 보는 自主的領土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兩班은 奴隸를 가지고 있었으나 嚴格한 位階에 의한 臣屬關係가 없었다. 이제 말한 典型的인 封建制度라고 하는 것은 嚴格한 「하야라키」가 있는 武士制度가 결트려진 地方自主的인 土地經濟를 말한나. 封建領土는 自己領土의 發展을 爲해 領民에게 技術을 開發시키고 資本蓄積에 힘을 썼다. 自己領土가 富強하지 않으면 다른 封建勢力에 依해 侵略을 當

前學術院會長 申 泰 煥

하기 때문이다. 이런意味의封建制度는韓國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원래韓國의地勢는河川水系の發達이 地方에 自主的인 勢力圈을 形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된 그理由가 무엇인가 말이다. 생각하건대 韓半島의 運命은 歷史的으로 中原의 風雲如何에 따라서 말하면 中國南北朝의 交替에 따라 左右되었다는事實때문인 것 같다. 그런 關係로 專制君主의 勢力은 對外的으로 弱하고 對內的으로 外勢를 壓고 擴張할 수 있어 地方勢力의 自主的發達이 있을 수 없었다. 專制君主의 命을 받은 地方長官이 一時 地方을 다스리고 물러나기 때문에 善政보다는 收奪이 甚했고 그 때문에 地方發達이 잘 안된 것 같다. 이렇게 典型的인 封建制度가 發達하지 못했기 때문에 韓國社會가 資本主義로 넘어 가는데 必要한 胎內에서 이루어진 資本과 技術의 原始蓄積에 보잘 것이 없었고 日帝의 侵略으로 前資本主義의 暗黒狀은 延長되고 말았다.

다음 또 한가지 韓國社會의 精神의 背景을 살펴 볼때 거기 近代化의 自體推進力이 없었던 가 말이다. 그것을 우리는 李朝後期儒學가운데 發見한다. 礪溪 星湖를 거쳐 茶山에 이르러 集大成된 實學思想이 그것이다. 傳統社會로 부터의 社會文化에 對한 批判과 反批判의 움직임이 그들이 依해 代辯되었다. 彼는 對外的으로 是 壬亂以後 유럽의 技術文明의 情報가 燕行使 등을 通해 天主學과 함께 자꾸만 들어 오던 때라 儒學者들은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大소크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고 急變하는 轉換期의 社會經濟文化에 對해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學者들이 經國濟世의 理論을 展開한 것이 事實이다.

그들의 實事求是의 實用的이고 實證的인 學問의 態度는 유럽의 文物을 받아 들여 富國強兵을 이룩해야 한다고 主張했고 바로 그런 態度야 말로 近代化를 指向하는 것으로 前期儒學에서의 性理學流의 思想의 哲學과는 다르다. 그들의 思想은 英國自由主義 經濟學의 始祖 아담스미스와 時代와 內容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때 그들의 思想은 韓國의 前資本主義末期의 社會改革에서 精神의 先驅였다. 그리고 그것은 韓國開港期의 各種 洋擾에 따른 西洋소크나 日本소크를 當렸을 때 東學에 나타난 人乃天思想과 一脈相通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人乃天思想에는 프랑스 革命前夜의 自然法思想에 類似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思想이 充分히 開花하기 前에 日帝侵略으로 말미암아 結實을 못 보고 中斷되고 말았다. 이런 歷史的 背景에 비추어 볼때 當時의 東洋의 大소용들이 속에서 腐敗한 王黨派 執權層은 束手無策이었고 輿宣大院君의 天下의 情勢를 모르는 衛正斥邪의 暗愚한 鐵國政治는 日帝의 侵略과 함께 近代化에의 찬스를 完全히 놓치고 말았다.

一九四五年 日帝가 물러 간지 이미 三十八年이 지나 갔는데 그간 우리는 典型的인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를 이룩했고 다시 情報社會로 발전음을 하고 있다. 그간 우리는 近代化에 必要한 技術革命과 議會民主主義를 通한 法秩序를 確立했고 近代化를 大體로 完成했다. 日帝侵略으로 遲延된 近代化를 短時日內에 克復했다. 恒常時代의 不合理性을 排擊하고 合理的인 것을 追求하는 韓國民族의 오늘의 精神狀態는 앞으로 二、三〇〇年代에 다가 올 學技術文明의 새로운 轉期에 能히 對處해 나갈 것을 確信한다. 어쨌든 우리의 近代化過程은 日帝侵略으로 致命的인 打擊을 받았었다. 그래서 우리의 近

代化過程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舊韓末日帝侵略에 關한 史料들은 매우 重要하다. 이번 亞細亞文化社가 그동안 必要를 느끼면서도 아무도 손을 못냈던 史料整理에 舊韓末史料叢書를 料叢書를 刊行한 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의 近代化過程研究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解題

一、緒言

舊韓末은 西歐의 文明開化思想이 東洋에 밀어닥치는 開化期에 속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文明開化思想은 近代化思想이다. 近代化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西歐化를 意味한다. 歐美近代國家와 같은 레벨의 政治經濟法律을 制度化하고 國民個人을 政治的價値의 單位로 삼는 自由民主의 開明한 社會를 만들려고 하는 運動을 말한다.

그러므로 開國하여 門戶를 활짝 열고 歐美各國과 親善하고 通商하는 條約을 締結하는 것은 西洋人의 來往과 居留를 허락하고 그들과 通商을 增進하여 西方의 文物制度를 도입하는 同時에 自國民의 外國留學과 海外發展을 獎勵하고 自國의 資源을 開發하고 產業을 振興하는 등 開化政治를 하고자 하는 目的이 있다.

우리의 近代史를 펼쳐보고 항상 가슴아프게 생각되는 것은 儒敎主義文化圈에 속하는 東洋三國의 近代化의 발전음을 살필때 朝鮮王國은 왜 日帝 殖民地로 轉落하였고 中國은 이미 一七五〇年에 歐洲列強에 대하여 廣州港의 開港으로 開國을 斷行하고 있으면서도 왜 國土를 蠶食當하고 戰爭을 外國과 시작하였다 하면 敗하여 半殖民地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日本은 江戸時代에는 通信使

를歡符하면서 우리나라와友好關係를敦篤히한같은레벨의國家로있었고中國보다도 一〇〇年
이나 뒤늦게美國의艦隊를거느린McArthur의強壓에 못이겨 一八五四年에 開國하고 (1)美國의
治外法權 (2)關稅自主權拋棄 (3)開港場에外國人居留自由 (4)條約期間의不規定 및條約改定の同
意權留保等 一方的인不平等條約의締結을強制當하고 있는같은形便에 있으면서도 日本은 어찌
하여 一八六八年明治維新을斷行하여 天皇親政의王權을恢復하고廢藩置縣으로中央集權制를成
就하고秩祿處分에依하여武士階級은有價의으로解消시켜四民平等을實現하고維新政權을擔當
한中心人物인岩倉俱視 木戶孝允 大久保利通 伊藤博文等 多數重臣이 一八七二年八月率先 歐美視
察에 떠나二年間에 걸쳐 文明各國의近代文明을視察하고 一八七三年九月에 돌아와 歐美各國과
和親政策을 宣言하고 西歐文明制度를舉國的으로 도입 政治 經濟 文化 등 百事一新하고 西歐化하는
政治改革을斷行한 까닭에 가장 젊은時日에 東洋唯一의獨立國家가 될뿐 아니라 帝國主義侵略
國家로까지成長한 것이다. 도대체 그들이近代化에 成功한理由는 奈邊에 있는가
朝鮮王朝의末期를 돌이켜 보건데 高宗이 一二歲의 어린나이로即位한 것이 日本이 明治維新을
앞이든 一八六三年 二月이었다. 幼年을理由로 興宣大院君이 執政하게 되자 即時 封建制의 再編
成에着手 書院撤廢 등 弊政改革의 功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天下大勢에는 色盲이었고 國際
知識에는 너무도 蒙昧하였다. 一八六五年 二月 天主教徒인 前承旨南鍾三과 洪鳳周가國內에 潛
入한 베르느神父에 附託하여서라도 佛英과 同盟하여 危機를克服할 것을 建議하였으나 大院君은 이
貴重한 建議를 洋夷와의 通謀로 解釋 南鍾三 洪鳳周를 爲始한 教徒와 神父를 모조리 投獄 이듬해 正
月에 刑殺하였음은 勿論 그 후 丙寅洋擾와 辛未洋擾를 겪고 나서는 洋夷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 意氣

揚揚 더욱 踴躍한 鎖國政策을 強行하고 一八七一年 四月 서울 및 各道 要地에 斥和碑까지 세워서
衛正斥邪 一方通行의 나라로 만들고 反封建思想이나 進歩勢力은 壓도나지 못하게 彈壓하여 國民은
無知와 暗愚속에 빠뜨린 것이다.
同時代에 朝鮮 땅을 한 걸음만 밖에 나가면 北京이요 外國人과 外國軍隊가 득실거렸고 教會의 鍾
소리까지 울려나왔다. 淸國政府는 翻譯館을 새로 세우고 美國人 宣教師 丁禮良 (Dinsdag)을 責
任者로 하고 惠頓 (Hinton)의 國際法을 漢譯하여 『萬國公法』을 一八六四年에 出版하여 日本
보다도 한 걸음 먼저 西洋法受容의 先鞭을 치는 등 西歐文明 도입이 한창이었고 바다를 건너면 日本이
앞을 한 바와 같이 明治維新이 開國한 지 이미 一〇年이 지난 뒤라 歐美各國에 留學生을 많이
派遣하고 多數 外國人을 政府와 民間에서 傭聘하여* 國政을 改革하고 西歐式 政治體制와 法律體系
로 整備하는 한편 西歐資本主義 經濟機構를 全面的으로 採用하기에 바빴다.
衛正斥邪만 부르짖고 閉鎖社會를 固執한 孤立無援의 朝鮮王國에 日帝는 將兵에 西洋軍服을 입혀
고 西洋製軍艦을 끌고 와서 大砲를 쏘아대며 江華島에 上陸 開港을 要求하고 自己가 當하고 있던 그
條約의 不平等條約을 朝鮮政府에 뒤집어 씌우고 西洋人이나 된 것처럼 우리에게 治外法權을 行使

* 梅溪昇 「被雇い外國人」 一九六八、東京 五二―五三面
當時 日本의 外國人雇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年 度 一八七二 七三 七四 七五 七六 七九 八〇 八一 八二 八三 八四 八九 九六 考
官雇外國人 三六九〇七 五五四七 四六九三 二六二二 六二五七 一六二五 一三二一 〇 漸減傾向
私雇外國人 一 七三二 六三五五 四三五四 五七四九 五〇九四 八四七二 四九三〇 四八七五 〇 七二八 增加傾向

한 것이다. 눈감박할 사이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變을 당하고 만 것이다.
東洋三國은 서로 同文同種이라고 하면서 中國과 朝鮮은 왜 殖民地와 半殖民地가 되어 恥辱의 길을 걸어야 했고 유독 日本만이 왜 自主獨立을 成就하고 歐美列強에 끼우는 榮光의 길을 걸게 된 것인가 그理由가 奈邊에 있는가는 우리가 反省하여야 할 問題이고 또 나아가 우리 近代史가 解明하여야 할 重大한 課題가 아닐수 없다.

日本 大使職을 지낸바 있는 坂. O. Pennington 教授는 中國과 日本의 近代化를 比較하는 글 가운데서 卑近한 例로 外國留學의 例를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海外留學을 하고 歸國한 野望에 찬 兩國의 青年을 比較하여 볼 때 日本에서는 海外에 派遣된 留學生 중에 長州藩의 伊藤博文이나 井上馨도 끼워 短期間이지만 外國에서 獲得한 知識을 活用하여 日本 近代史의 中心人物이 되고 있다. 이것은 重要な 問題이다. 日本近代史家들은 이점을 看過하고 있다. 中國의 경우를 생각하면 中國도 青年이 海外에 留學하는 것은 대단히 自由로웠다. 다만 그들이 工夫하고 祖國에 돌아온 후 그들은 重要的 歷史的 人物이 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다.
峇闕(용원)이나 그가 引率한 留學生團이 海外留學하고 歸國한 후 걸어진 運命은 悲慘할 뿐이다(B. O. 라이샤warz 著 「日本近代의 新しい見方」, 一九六五年 東京 講談社)

Professor 教授의 이 말에 朝鮮王國의 留學生의 運命을 追加하고 싶다. 朝鮮의 경우에는 條件이 中國보다도 不利했다. 國民이 國外에 나가는 것은 國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留學이란 생각도 할 수도 없었다. 一八八一年에 이르러 겨우 紳士遊覽團의 日本派遣의 舉事가 있었고 視察이 끝난 후 隨行員의 一員이었던 俞吉濬은 다시 一八八三年 六月 報聘親善使節團의 一員에 編入

되어 美國을 訪問하게 된 마 歸國길에 또 다시 혼자 美國에 남아 보스턴市 近郊의 名門校 談馬學院(高等學校級)에서 一年餘期 英語工夫를 하고 돌아왔다. 美國의 文物制度를 目睹하고 研究하고 平穩한 新知識을 가지고 野心에 차서 돌아온 最初의 美國留學生이지만 俞吉濬은 서울 長安에 틀어박자마자 南大門路上에서 逮捕되어 그가 留學中에 일어났던 甲申政變의 連累者라는 엉뚱한 理由로 八年 間 幽閉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甲午更張에 一時 拔擢되었으나 또리어 親日派로 불려 오케듯 甲午更張 후 비로서 日本留學의 길이 겨우 열려져 二〇〇余名의 官費留學生이 日本에 派遣되어 正式大學教育까지 마치고 多年間 新學問을 터득하고 큰 希望을 품고 그들이 祖國에 돌아왔으나 封建的 兩班階層의 政權을 잡고 捨之不動인 색소날리증에 壓倒되어 그들은 政權의 近處에도 못 가보고 一部는 就職하여 官職을 얻었으나 자활이 멀다하고 轉轉하였고 一部는 아예 就職을 拋棄하고 自業의 從事하였으니 政權의 主體勢力이 되어 自主採西 祖國復興의 歷史的 人物이 된다는 것은 꿈이요 留學生이 賤待받은 것은 中國이나 다를바가 없다.

姜在彥教授는 開國前夜에 같은 鎖國之下에 같이 西歐文明의 印과 크트를 받고 對應하면서 朝鮮과 日本이 같다는 挫折하고 하나는 成功한 思想的 背景을 說明하면서

「朝鮮과 日本은 長期間的 鎖國의 時代가 있었다. 여기서 鎖國이라고 하는 것은 東洋三國之間을 除外한 이야기이며 어디까지나 異質文化圈(基督敎圈)에 대한 그것을 말한다. 日本은 一六三九年에 鎖國을 完成하고 있으면서도 長崎出島에 限하여 和蘭人에게 通商을 許可하고 있었다. 一七二〇년에는 基督敎關係를 除外한 洋書의 輸入도 許可한 것이다. 日本에서는 西洋人에 의한 翻譯書를 通한 것이 아니고 長

崎를 源泉으로 하는 日本人 自身에 의한 蘭學이 誕生한 것이다. 日本은 鐵國中에도 西歐文化도 도입에 長崎라는 窓口를 가지고 있었다.

朝鮮國의 官吏들이 西洋人의 文字를 보고 「字狀如山如雲 譯官所不解」라고 말하고 있을 때 日本에서 是 和蘭人의 人體解剖書「타헤루·아나트미아」를 蘭學者인 前野良澤 松田玄白 등이 翻譯하여 「解體新書」五卷을 一七七四年에 이미 刊行하였다.....

明治維新前夜에는 長崎에 和蘭人을 불러 長崎造船所의 前身인 總浦鎔鐵所를 創設하고 (一八五七年) 前後하여 近代의 海軍의 訓練을 위한 海軍傳習所도 만들고 있다(一八五五年). 不幸한 것은 朝鮮에는 長崎가 없었다는 것이다(姜在彦著 「朝鮮의 攘夷와 開化」, 一九七七年, 東京平凡社)

라고 안타까와 하면서 記述하고 있다.

漢字를 쓰는 같은 儒敎의 나라라고 하지만 日本社會는 朱子學이 特定學派의 規制를 받은 社會가 아니었다. 儒學者인 山鹿素行은 朱子學을 否定하였고 伊藤仁齋는 朱子學의 理氣二元論을 反對一元論을 폈고 其他 徂徠學派 清의 考證學派 陽明學派 등 朱子學을 批判하는 學派가 到處에도 사리고 있었고 勿論 林羅山 山崎闇齋에 이어지는 朱子學을 高唱하는 學派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同如 日本에는 長崎 뿐만 아니라 儒學研究의 面에서도 廣汎한 自由가 認定되어 있어 歐美文化의 思想도 도입에 편리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렇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日本社會는 本質적으로 武家社會로 武家政治國家였다. 儒家인 兩班이 士族인 兩班이 武士가 士族이 오 支配階級이었으므로 儒敎와 政治가 密着할 까닭이 없었다.

朝鮮王朝社會를 兩班社會라고 부르고 있는바 兩班은 열마나 있었으며 平民은 열마나 되며 무엇

을 하고 있었던 말일까 舊韓末의 우리 兩班社會는 어떠한 社會였던 것일까 多事多難하였던 舊韓末開國時代에 兩班階層은 어떠한 機能을 하고 어떠한 政治를 하고 있었던가 兩班과 百姓과의 關係는 어떠한 關係였던가 우리는 왜 兩班階級을 解消시키려는 作業을 하여 萬民平等을 이룩하지 못하였을까 우리의 兩班政治를 反省하고 兩班과 百姓과의 關係를 考察하고 成立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根本적으로 우리의 近代化는 왜 挫折되었는가 挫折속에서라도 內在的 自生的發展의 萌芽와 進歩의 契機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일까 우리의 近代史를 日帝의 侵略과 收奪에 대한 民衆의 抗爭과 獨立精神의 鼓吹로 對決하고 日帝의 殘虐한 壓制를 告發하는 것은 第一任務요 必要하고 重要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社會經濟의 自生的 內在的發展과 自律的인 西歐文化의 受容에 關한 考察이 缺落된 近代史가 될 憂慮가 있지 않을까 念慮된다. 萬一 近代史一般 (Die Moderne Geschichte) 도 Engel의 말대로 精神的 自由의 歷史 乃至 自我意識發展의 歷史라고 한다면 舊韓末開化時代에 民衆이 自由와 權利를 찾기 위하여 열마나 絶叫하고 열마나 努力하였는가 우리는 近代史料의 좀 더 많은 文獻을 探求하고 發掘하여 舊韓末의 社會發展의 過程을 研究할 必要가 있다. 兩班社會를 肯定하고 開化政治를 바라는 것은 武家階級을 存置하고 維新政治를 하겠다

二、舊韓末史料의 探求

前項에서 살핀바와 같이 우리의近代史는實로 許多한 未開拓分野와 究明되어야 할 많은 課題를 안고 있다. 舊韓末은 中心으로 하는 史料를 組織的 系統的으로 探求하고 더 많이 發掘하여 세로운 科學的近代史를 定立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自己의 失敗나 短所에 대한 深刻한 反省은 失敗와 短所를 克服하는 必須不可缺의 原動力이다. 어느나라이건 歷史에는 時代的 起伏이 있고 興亡盛衰가 있다. 榮光도 있고 恥辱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近代化挫折의 原因은 奈邊에 있던 말인가 同時代에 우리政治의 失手는 어디 있었으며 우리社會의 虛點은 무엇이었던가 이에 대한 深刻한 反省없이 侵略의 糾纏만으로는 올바른近代史가 되기 어렵다.

우리는 近代化挫折의 原因은 多角도로 파헤치고 反省하고 批判하고 그 理由를 究明하여야 할 것이다. 合理的 實證的 思考를 蔑視하고 感情을 앞세우고 結論을 서두르거나 先入感에 支配된 論說은 삼가야 할 것이다. 尙상 世界近代史의 一環으로서 比較史的 批判을 거친 韓國近代史가 定立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舊韓末日帝侵略史料가 廣泛하게 發掘되고 系統的으로 整理될 것을 主張하며 自國人の 記錄과 著述뿐 아니라 外國人の 著述이나 記錄도 可能한 限까지 發掘하고 蒐集하여 多角도로 檢討되고 檢證되어야 할 것이다. 史料는 時日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지고 흩어지고 湮滅하게 마련이다. 아무리 우리가 옛 좋은 法 (Antiquities بحث) 옛 좋은 風習 (Antiquite Witté)을 가지고 있 다. 손치더라도 記錄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歲月의 흐름에 따라 過去의 帳幕속에 亡失되어 버린 다. 또 外國人の 史料中에는 우리가 미처 記錄으로 남겨 놓지 못한 空白를 메꿀 수 있는 資料도 發見할 수 있고 우리의 社會나 風習 또는 藝術을 보고 들은대로 적은 글도 있을 것이요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記事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잊어버린지 오랜 아름다운 風俗과 習慣을 적어 놓은 글도 찾아

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惡意에 찬 筆은 非難의 記述에도 接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侵略者들의 글속에 도리어 強奪의 質과 量을 헤아릴 수 있는 科學的 證據도 發見하게 될지 모른다. 그 모든 것이 外國人이 第三者로서 보고 느낀 것을 적어 놓은 客觀的인 記錄인 만큼 虛心坦懷 謙虛하게 받아들일 것은 바랍시고 이를 分析하고 綜合하고 切實한 檢證과 批判을 거쳐서 그 가운데서 舊韓의 우리社會의 客觀的 眞實을 發見하고 우리의 近代化挫折을 克服하는 契機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위와 같은 目的에 즈음이라도 副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外國人の 著述을 中心으로 하는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의 刊行을 計劃하기에 이르렀으며 史料編輯과 取扱의 凡例를 다음과 같이 定하고자 한다.

「凡例」

- (一) 舊韓末日帝侵略史料라함은 一八七六年開國의 前後부터 大韓帝國時代 統監府 乃至朝鮮總督府 時代의 初期까지의 著述物을 意味한다.
- (二) 著述物의 形式으로 말하면 新聞 雜誌 月報 年報 案內 概要 要覽 總覽 事情 事件 調查書 報告書 會議錄 法令集 各種統計 年鑑 地理 地誌 등 官廳 및 關係機關의 編著의 記錄은 勿論 個人的 記錄 論著 評論 史記 回顧錄 雜記 傳記 報告 談話集 紀行文 地誌 法令 解釋書 文集 隨筆 등의 著述物과 翻譯物을 包含한다.
- (三) 著述物의 內容으로 말하면 政治 行政 法律 外交 經濟 財政 貨幣 金融 貿易 商業 工業 農林 水產業 鑛業 交通 通信 教育 文化 社會 宗教 自然科學 民俗 등의 著述物과 翻譯物이 될 것이 다.
- (四) 著者 編者는 外國人에 限한다. 外國人이라 함은 外國官廳과 機關을 包含하며 日本人 美國人 英國人 佛國人 獨逸人 其他 外國人의 著述物과 翻譯物을 意味한다.
- (五) 本叢書로서는 外國人중에서 우선 日本人의 著述物과 翻譯物을 對象으로 國內外 다음과 같은 各種圖書目錄(藏書目錄)에서 編輯委員이 調査하여 第一次 本叢書刊行目錄을 다음 各種圖書目錄에서 選定하였다.

「各種圖書目錄」

- 一、國立中央圖書館 圖書目錄
- 二、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圖書目錄
- 三、國會圖書館 藏書目錄
- 四、朝鮮總督府所屬官署主要刊行 圖書目錄
- 五、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末松保和)編 朝鮮研究文獻目錄
- 六、アシヤ經濟研究所編 舊植民地關係機關刊行物 綜合目錄 朝鮮編
- 七、石井正敏・川越泰博編 日中・日朝關係文獻目錄
- 八、樓井義之編 朝鮮研究文獻誌
- 九、韓國學文獻研究所 所藏目錄

(六) 今般復刻刊行할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로서는 著述物의 內容을 一應 아래와 같이 刊行에 便利하게 分類하였다.

- 一、政治篇 法律 行政 外交
- 二、經濟篇 財政 貨幣 金融 貿易 商業
- 三、社會篇 教育 文化 宗教
- 四、統計篇 各種統計

本史料叢書編輯委員은 以上の編別에 따라 위 各種圖書目錄에서 著述物을 다음과 같이 調査選擇하여 第一次로 復刻刊行코저 하는 바이다.

社會篇

(一) 最新의 韓國事情

岡庸一著 東京 青木菴山堂 一九〇三年九月刊 一五七面 菊判

「目次」總論 第一篇 生產 第二篇 貨幣 第三篇 貿易 第四篇 物價 第五篇 信用 第六篇 產業 第七篇 交通 運輸 第八篇 財政 第九篇 條約 其他規則 第十篇 日韓貿易經營論

本書에는 高崎親章 小松原英太郎 幣原喜重郎 田端正平 등의 序文이 붙어 있으며 著者 岡庸一은 本來 言論人이였으며 釜山 商業會議所의 事務局長으로 있으면서 本書를 著述하기 에 이르렀다. 凡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一、韓國貿易의 經營에 重點을 두었다.

二、韓國의 經濟事情을 網羅하였다.

三、本書의 資料는 最正確하고 最新近한 것이며 一九〇一—一九〇三年間의 現況을 實地調査한 記錄이다.

四、本書는 識論을 쓴 것이 아니라 事實을 적은 것이며 韓國貿易의 先導者로 燈臺者로 指南者이다.

(二) 韓半島

信夫淳平著 菊版 六九四面 一九二二年九月 東京 東京堂書店刊

「目次」第一章 釜山及仁川第二章 京城第三章 景福宮及慶運宮第四章 開城府第五章 平壤及鎮南浦第六章 成敏의 古戰爭第七章 行政組織第八章 財政第九章 國際關係의 事歷第十章 各國의 利益第十一章 半島に關する諸統計

本書의 著者는 法學博士인 韓國公使館參事官 仁川總領事 仁川理事廳理事官을 歷任 退官後 早稻 田大學教授로서 國際法의 權威였다. 氏의 「戰時國際法」四卷은 學士院賞을 받았으며 約四年間 諍은 時節에 韓國의 勤務하면서 韓國社會를 보고 研究한 學究的인 韓國研究書의 하나이다.

(三) 韓國總覽

德永勳美編著 菊版一四九〇面 一九〇七年八月 東京博文館刊

「目次」第一章 總論第二章 地理第三章 沿革第四章 近世史第五章 行政組織第六章 財政第七章 教育第八章 社會組織第九章 風俗習慣第十章 農業第十一章 商業第十二章 工業第十三章 水產業第十四章 礦業第十五章 山林第十六章 交通運輸第十七章 金融機關第十八章 通貨第十九章 度量衡第二十章 條約及法規附多數寫眞

本書의 著者는 日帝農商務省商工局員으로 勤務하던 者로서 明治三十七年以來 三年間 韓國研究에 沒頭하여 成稿한 著書이다. 本書에는 伊藤博文의 題字 前外務大臣林董의 題字 農商務大臣 松岡康顯의 序文 前外務大臣石井菊次郎의 序文 등으로 裝飾하고 있으며 그의 例言에 의하면

一、韓國에 關한 著書는 從來 적지 아니하나 大概 一方에 偏하고, 其事情을 網羅하기 못하고 있다.

二、本書는 그 冊名과 같이 韓國에 關한 모든 事項을 總網羅하고자 努力하여 地理 歷史 行政 財政 教育 社會 組織 風俗 各般 產業 運輸 交通 貨幣 金融 등 各部門에 貫하여 具體的으로 二十章 九十九節 百八十八款 百七十二項에 分類說明하였다.

三、韓國에 關한 文獻은 新聞 雜誌를 비롯하여 各種 著書 文獻과 各種 實地 觀察하여 調查 報告한 것들을 卽時 檢閱하여 正確을 期하였다.

라고 記述하고 있는바와 같이 當時의 韓國에 關한 百科辭典의 人著作이라고 할 수 있다.

(四) 韓國誌 (原著 露國大藏省編)

日本農商務省譯 菊版 六三六面 一九〇五年七月 (一九一〇年四版) 日本農商務省山林局刊

「目次」一、生産·農業二、水産三、狩獵業四、林業五、鑛産六、製造業七、商業八、河川九、氣候及植物十、運輸交通 十一、地質 十二、國民 十三、地方自治制度 十四、教育學術 十五、基督敎加特力敎ノ傳播 十六、露韓條約 十七、露國ノ韓兵敎練士官 十八、沿革ノ大要 十九、道路 二十、風俗 二十一、制度

本書는 Russia Ministerstvo Finansov, Opatnie Korei (S. Kartoi), 3 Vols, Petersburg, 1900을 抄譯한 것이다. 出版者인 農商務省山林局은 「小引」에서 「本書는 元來 露國大藏省의 調査編纂에 繫한 것이나 韓半島에 있어서의 建國의 沿革의 大要、風土民俗、韓國制度의 梗概 및 地方自治制의 現況을 밝히고 있고 各種 産業及 交通에 關한 現狀 其他 未開發의 富源 調査 등이 頗히 的 確하므로 因하여 이를 抄譯하여 殖産에 뜻을 둔 有志의 參考에 供하는 바임」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本書는 一九〇五年 (明治三十八年) 七月初版을 發行하였으나 評이 좋아 一九〇七年一月再版 同年八月

三版 一九二〇年一月에 四版을 發行하는 盛況을 이룩한 名著이다.

(五) 朝鮮紳士名鑑

收山耕藏編 菊版 本文三二七面 寫眞多數 一九二一年五月 日本電報通信社京城支局刊

「目次」王族 六侯爵 三伯爵 二十二子爵 四十五男爵 尹姓以下 各姓의 重要人物紹介 朝鮮總督府 中樞院 取調局 警務總監部 各道地方廳 各學校 憲兵隊 新聞雜誌社 銀行會社 商店 旅館 卷頭에 多數 肖像을 掲載

本書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合併當時의 王族以下의 韓日兩國의 人名錄이요 朝鮮總督府以下 公私各機關의 職員錄에 代할 수 있다.

編者는 日本電通의 京城支局長 收山耕藏로 뒤에 朝鮮新聞社長을 오래 歷任한 者이다. 그는 「朝鮮紳士名鑑」의 編纂은 朝鮮에 서의 嚆矢의 事業이므로 資料蒐集에 意外의 長日月과 努力을 要하였다 「고 밝히고 表紙及 背上의 金字는 朝鮮 第一流書家 丁惟喬(八〇歲)의 揮毫라고 자랑하고 있다.

(六) 朝鮮紳士大同譜

大垣丈夫編 菊版 一一二七面 一九二三年二月 朝鮮紳士大同譜發行所刊

「目次」御眞序文 李朝瑞譜 貴族之部 李氏部以下 各姓氏部 孝子部 烈女部 夫人部

本書는 前書와는 달리 韓國人만의 人名辭典의 一種이다. 編者大垣丈夫는 日本人 言論人으로 自強會등 韓國人의 政治團體을 도와 啓蒙에 從事하고 있으면서 牧野氏의 前書가 日本

人中心으로 된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朝鮮人만의 人名辭典을 만들고 紳士大同譜라고 稱하고 發刊하였다. 編者는 漢文으로 序文을 쓰고 「噫라 不佞은 曩在本國하여 夙仰朝鮮爲禮儀之邦하고 及渡海日與鮮士遊하니 鮮之士는 以不佞으로 爲歷史家하고 持舊日 萬姓譜者示之니라 見夫大家、世族、名公、碩儒하니 道德、文章、節行、勲業이 日星乎 竹帛이오 山斗乎 癸이 다. 前後四千年 福落相望何其盛歟! 此鮮之所以爲鮮者也니라 然이나 世已新矣이오 譜已舊矣니라... 於是 發起하여 遍邦自京道府郡하니 而從而贊成이라 十有一月而譜告功하니라」라고 그 旨을 說明하고 있다.

(七) 現代漢城의 風雲と名士 附兩班의 衰亡其他

細井巖著 菊版 二二九九面 一九二〇年五月 日韓書房刊

「目次」第一章 緒論 第二章 德壽宮と昌德宮 第三章 現任內閣大臣 第四章 漢城政海의 元老 第五章 漢城政海의 立物 第六章 漢城의 青年政治家 附錄 兩班의 衰亡、平齋先生と李完用、韓政黨의 現況、京城의 沿革

著者는 言論人으로서 처음 朝日新聞記者였으나 뒤에 辭職하고 南北中國을 周遊하고 歸途 朝鮮에 歸려 朝鮮事態를 보고 朝鮮問題研究에 뜻을 품고 朝鮮言論界에서 活躍하였다. 著者는 序文에서 「今後이 韓國政客의 行動이 世人의 注意의 焦點이 될것은 疑心의 余地가 없는 것이므로 不遜의 非難을 不顧하고 敢히 此書를 上梓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八) 朝鮮貴族列傳

大村友之丞編 四六倍版 一六三三面 一九二〇年二月 朝鮮研究會刊

「目次」李王家の榮光 李朝璿譜 各王族 六侯爵 三伯爵 二十二子爵 三十五男爵(元來四五男爵十人辭退)

本書는 日帝의 授爵을 받은 新貴族의 列傳이오 그 人名簿이다。前示紳士大同譜에도 新貴族의 列傳이 실려 있으나 人品을 적은 内容에 若干의 差異가 있어 이것은 이 次에 參考가 된다。

一九八三年二月

韓國法史學會 田 鳳 德

岡 庸 一 君 著

最新韓國事情

一名韓國經濟指針

東京 嵩山堂發行

總

論

第一章

日韓貿易の起源及沿革

第一節

日韓兩國地理上の關係

第二節

位置面積及人口

第三節

地勢と地質

第四節

山川と原野

第五節

濼灣と潮汐

第六節

氣候

第七節

道路と橋梁

第八節

人情風俗

第九節

日韓の國際關係

第十節

國際關係の一轉化

第十節

貿易舊に復す

第二章

維新革命と日韓貿易

第一節

進取排外兩主義の衝突

一	頁
一	頁
三	頁
四	頁
五	頁
六	頁
七	頁
九	頁
十	頁
十三	頁
十六	頁

最新韓國事情 目次

岡庸一君茲に見る處あり今回最新韓國事情一名韓國經濟指針なるもの著述し汎く韓國の實狀を紹介せんとす君や嘗て久しく操觚界に在り當國に來りて居留民とかりたるは實に余の紹介する處也、經ること數年此間數々内地を視察し熱心當國の實業事情を調査研究し遂に此著あり一日携へ來りて余に序を請ふ余多忙の際通讀の暇おかりしと雖も其内容の斬新精確にして材料の實際的なるは余の保證を辭せざる處也、彼の韓國を推測的に論議し妄想的に解決せるものに比しては蓋し省壤の差のみからんや、余は信す君は在韓の人たる丈け夫れ丈け讀者に有益の興味を興へし、あるを信ぜ、若し夫れ韓國の内容を詳にせし日韓通商の經營等に當らんとするの士は先づ本書を鑿て而して後着手せば希くは大過をからん乎之と序と爲す

在韓國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

明治三十六年 初秋

理事 長 田 端

正 平

第七節	排外主義と日韓の通商	十八頁
第六節	修交條規附錄と通商章程の議定	二十頁
第五節	修好條規續約と日韓人民貿易規則等の協定	二十頁
第四節	韓國と列國	二十二頁
第六節	日韓通商貿易の確立	二十二頁
第一節	韓國に於ける生産	
第一節	自然的生産、人為的生産	二十五頁
第二節	自然的生産	二十六頁
第三節	人為的生産	三十六頁
第二章	産業の保護	
第一節	韓國の原始的産業	三十六頁
第二節	原始的産業の現状	三十七頁
第三章	韓國の農業的施設	
第一節	農業の實況	五十二頁
第二節	一耕作すべき餘地……二土地所有權……三田畑地稅……四農業上の利益……五農作法	五十八頁
第三節	韓國の養蠶業	七十八頁
第四章	牧畜	
第一節	韓國の煙草業	九十三頁
第二節	朝鮮人羣	百十頁
第三節	韓國の棉花	百十九頁
第四節	全羅道の藍作	百二十頁
第五節	日本稻作試作の様態	百廿一頁
第六節	韓國の鹽業狀況	百廿五頁
第七節	害蟲驅除	百卅一頁
第八節	米豆の產出額並に米豆雜穀の狀勢一斑	百卅二頁
第九節	農事策	百卅四頁
第五章	漁業	
第一節	漁業上の條約	百六十頁
第二節	全羅道沿海に於て研究を要する漁業	百六十四頁
第三節	韓國西海岸の漁業調査	百六十五頁
第四節	慶尚道南岸本邦人漁業近況	百九十五頁
第五節	江原咸鏡兩道本邦人漁業狀況	百九十八頁
第六節	各種漁業の實況並に販賣狀況	二百三頁
第七節	魚族の産地と種類	二百十七頁

第貳篇

第壹章 第四節 生産要素の二缺點……………三百二頁

第五節 結論の結論……………三百四頁

第貳章 第四節 貨幣の種類……………三百十五頁

第五節 貨幣に對する法令……………三百十九頁

第六節 貨幣流通の状況……………三百廿四頁

第七節 韓貨と日本貨幣との關係……………三百廿六頁

第貳章 第四節 韓貨に於ける手形流通の状況……………三百廿九頁

第五節 葉錢の性質……………三百三十一頁

第六節 葉錢の計算法……………三百三十二頁

第七節 葉錢の流通高……………三百三十四頁

第八節 葉錢の賣買取引……………三百三十五頁

第九節 韓錢賣買に於ての諸規則……………三百四十頁

第十節 韓錢手形……………三百四十七頁

貨幣

總論……………三百五頁

韓國貨幣制度研究の必要……………三百六頁

貨幣の種類……………三百十五頁

貨幣に對する法令……………三百十九頁

貨幣流通の状況……………三百廿四頁

韓貨と日本貨幣との關係……………三百廿六頁

韓貨に於ける手形流通の状況……………三百廿九頁

葉錢の性質……………三百三十一頁

葉錢の計算法……………三百三十二頁

葉錢の流通高……………三百三十四頁

葉錢の賣買取引……………三百三十五頁

韓錢賣買に於ての諸規則……………三百四十頁

韓錢手形……………三百四十七頁

第八章 第一節 朝鮮海捕船業……………二百二十三頁

第二節 一起原沿革……………二捕鯊種類……………三捕鯊季節……………四捕鯊法……………五捕鯊機機港……………六捕鯊船組織……………七捕鯊課稅……………八捕鯊情況……………九捕鯊處理法……………十捕鯊者情態……………十一鯊肉商情態……………十二捕鯊船と韓人との關係……………十三捕鯊業の前途……………

第九章 第一節 漁船集合の様模……………二百六十二頁

第二節 漁獲統計……………二百七十八頁

第三節 狩獵……………二百七十九頁

第四節 狩獵保護の必要……………二百七十九頁

第五節 森林保護の必要……………二百七十九頁

第六節 礦山……………二百九十五頁

第七節 韓國の礦山……………二百九十五頁

第八節 元山管轄區……………口馬山管轄區……………ハ平壤管轄區……………三群山管轄區……………

第九節 韓國鐵山に關する石井理學士の所說……………二百九十四頁

第十節 金塊及砂金集散の狀況其他……………二百九十五頁

第十一節 結論……………二百九十五頁

第十二節 原始的産業に對する韓政府の觀念……………二百九十七頁

第十三節 原始的産業に對する韓國民の觀念……………二百九十九頁

第十四節 人為的産業の獎勵保護……………三百頁

原始的産業に對する韓政府の觀念……………二百九十七頁

原始的産業に對する韓國民の觀念……………二百九十九頁

人為的産業の獎勵保護……………三百頁

結論……………二百九十五頁

金塊及砂金集散の狀況其他……………二百九十五頁

韓國鐵山に關する石井理學士の所說……………二百九十四頁

元山管轄區……………口馬山管轄區……………ハ平壤管轄區……………三群山管轄區……………

韓國の礦山……………二百九十五頁

韓國鐵山に關する石井理學士の所說……………二百九十四頁

金塊及砂金集散の狀況其他……………二百九十五頁

結論……………二百九十五頁

原始的産業に對する韓政府の觀念……………二百九十七頁

原始的産業に對する韓國民の觀念……………二百九十九頁

人為的産業の獎勵保護……………三百頁

第三篇 貿易

第一章 韓國の貿易.....五百一十一頁

第一節 陸路貿易.....五百一十八頁

第二節 韓國總稅務司の貿易統計.....五百十九頁

第三章 日韓貿易

總論.....五百二十七頁

日韓貿易發展策.....五百二十九頁

 甲 輸入貿易不振の原因.....乙 輸出貿易の擴張

各開港場の貿易状況.....五百四十二頁

 一 釜山港の貿易一斑.....二 京城の貿易一斑.....三 仁川港の貿易一斑.....四 元山港の貿易一斑.....五 木浦港の貿易一斑.....六 平壤の貿易一斑.....七 馬山浦

第二章 貨幣制度論

第一節 墨西哥貨幣.....四百六十一頁

第二節 支那貨幣.....四百六十二頁

第三節 露國貨幣.....四百六十一頁

第四章 韓國貨幣制度論

内外の輿論.....四百六十二頁

中央銀行の設立.....五百五頁

兌換金券條例.....五百九頁

第三章 白銅貨

第一節 白銅貨の沿革.....四百十四頁

第二節 白銅貨と議政府會議.....四百二十八頁

第三節 白銅貨と我政府.....四百二十九頁

第四節 白銅貨と我在韓民.....四百二十九頁

第五節 議政府再會議と白銅貨鑄造停止.....四百五十四頁

第六節 秘鑄取縮と價格の昇騰.....四百五十四頁

第五章 各種貨幣の流通高

五分赤銅貨.....四百五十五頁

一分黃銅貨.....四百五十五頁

五分赤銅貨.....四百五十六頁

金貨.....四百五十六頁

銀貨.....四百五十六頁

日本紙幣.....四百五十七頁

第一銀行發行券.....四百五十八頁

舊壹圓銀貨.....四百六十頁

補助貨幣.....四百六十頁

第八篇

- 第五節 汽船及鐵道運賃……………八百六十七頁
- 第六節 郵便電信料金……………九百四頁
- 第七節 倉敷料……………九百六頁
- 第八節 解人足賃其他入足賃……………九百八頁
- 第九節 朝鮮入道地名並京城より各地距離……………九百十一頁
- 第十節 新設航路標識……………九百十五頁

財政

- 總論……………九百十八頁
- 所謂韓國財政……………九百十九頁
- 歲出入豫算……………九百四十一頁
- 徵稅法……………九百四十一頁
- 關稅……………九百四十四頁
- 韓國海關……………九百四十四頁
- 法規……………九百四十六頁
- 朝鮮國稅關上屋荷物貯規則……………朝鮮國稅關信庫規則

第九篇

- 第三章 第二節……………九百六十三頁
- 第二章 第一節……………九百六十四頁

條約其他諸規則

- 度量衡……………九百六十三頁
- 韓國の度量衡制度……………九百六十四頁
- 度量衡法……………九百六十四頁

第七篇

- 第二章 第五節……………七百九十七頁
- 第三章 第一節……………七百九十四頁
- 第二節……………七百九十五頁
- 第四節……………七百九十七頁
- 第五節……………七百九十七頁
- 第四章 第一節……………八百十三頁
- 第二節……………八百十三頁
- 第五章 第一節……………八百十九頁
- 第二節……………八百二十頁
- 第三節……………八百二十四頁
- 第四節……………八百五十二頁

交通運輸

- 總論……………八百十九頁
- 交通運輸の區別……………八百十九頁
- 交通運輸の條件程度……………八百二十頁
- 各港開揚に於ける交通機關……………八百二十四頁
- 元山……………馬山浦……………鎮南浦……………平壤……………城津……………蔚山……………水浦……………釜山……………仁川……………京城……………各鐵道の狀況……………八百五十二頁

第二章

- 第一節……………七百九十二頁

輸出入物産の將來、行商、商品陳列館

- 我國の物産にして將來韓國へ輸出すべき見込ある物品……………七百九十二頁
- 内地行商……………七百九十四頁
- 商業的組合……………七百九十五頁
- 荷造……………七百九十七頁
- 商品陳列所……………八百頁
- 内地の商品集散地……………其重なる都邑……………八百三頁
- 内地農商況及物價償銀其他……………八百十三頁
- 取引所……………八百十三頁
- 取引所と在韓居留民の意向……………八百十七頁

最新

韓國事情

(一名韓國經濟指針)

岡

庸

著

第一章

第一節

日露英條約

各國條約を掲げざる理由……………九百八十一頁

第二節

日韓條約

……………九百八十一頁

第三節

英韓條約

……………千九百一十一頁

第四節

日露協商條約

……………千九百三十五頁

第五節

露韓通商條約

……………千九百三十八頁

第六節

各國條約請結期

……………千九百三十九頁

第七節

在留民必須の諸規則定款

……………千九百七十頁

第十篇

第一章

日韓貿易經營論

……………千九百三十三頁

第二節

經營の方針

……………千九百三十三頁

第三節

經營の目的

……………千九百三十四頁

第四節

經營の手段

……………千九百三十六頁

第五節

官吏の眼に映じたる經營

……………千九百三十三頁

第六節

學者の眼に映じたる經營

……………千九百五十五頁

第七節

新聞記者の眼に映じたる經營

……………千九百一十頁

第八節

實業家の眼に映じたる經營

……………千九百一十八頁

第九節

在韓商業團體の經營

……………千九百四十七頁

總論

第一章

日韓貿易の起源及沿革

第二章

日韓兩國地理上の關係

日韓兩國貿易の起源を説くに當ては先づ日韓兩國地理上の關係を知らざるべからず、故に茲に單簡に兩國地理上の關係を叙せんとす、日本國と朝鮮國とは恰も沙上に畫かれたる人字に似たり、一方の頭部は他方の咽喉部に臨み、離るゝが如く又含するに似たり而して日本海を掩へり

臺灣附近より奔流する潮流は五島濟州を掠り對州海峽を通過して二派となり、一は山陰、北陸の沖を過ぎて北海道海峽に至り、一は慶尚、江原の北を横ぎりて咸鏡道吉州沖に北來の極流と會して右折し日本海を衝き宗谷海峽に到る、而して上古日本と半島とを連絡するには三條の水路あり、南は全羅道

の南端より濟州、五島を経て長崎港又は大村灣に接するの線、中央は慶尚道の釜山浦又は洛東江口よ

らん

順を失す
 道路既に斯の如し其橋梁に至ては殆んど絶無と云ふべき乎、尤も此國の河川は平日水淺く或は全く涸
 竭せるもの多きが爲めに橋梁の必要を認めざるにも依るなると雖ども、中には満水の河川にも猶
 且つ橋梁の存せざるもの多し、要するに衣を掲げて渡り得べきの河川は大概橋梁を見ず、偶々之れ
 あるも石を並べたる飛石橋ども云ふべきもの若くは丸木橋あるに過ぎず、此故に舟渡のなき河川は洪
 水の際は遂に渡る能はずして已む、旅客の迷惑言ふべからず、近時稍々交通の不便を感じ來りて都邑
 の附近は聊か見るべきの設備なきにあらずと雖ども兎も角交通の不便なる未だ此國より甚しきはなか
 らん

第八節 人情風俗

朝鮮人の人情氣質は地方に依りて各々異なり中には野蠻驕昧にして外人を憚るの餘、外國人と觀
 ら、試みに其氣質の如何を地方に依て區別せんに、慶尙道の民は行狀も他道の民より優り稍々勤勉陸
 蓄の精神あり而も好んで學に勵む、之れに反して江原道、咸鏡道の民は强悍饒野にして鬪争を好み、
 黃海道、平安道の民は最も頑固にして理義を辨知せず、京畿道、忠清道の民は怠惰にして驕奢、全羅
 道の民は貪慾飽くを知らず野心多し、然り然れども此國の民は一般無氣力小膽にして遊惰風を爲し七

第七節 道路と橋梁

道路は元來人工に成りたるもの鮮なく、多くは自然的に成りたるものなるが故に概して嶮惡且つ狹隘
 なり、一例を示せば坦々砥の如く二三間も市廣き處あるかと思へば忽ち細く狭く成り行きて牛馬の通
 行難きものあり、王路と名くるものゝ如きは此國第一の大道なりと稱するも修繕を施さざるが故に歩
 行の困難言ふべからず其他は踏分け道、山道等にして先導者を導るにあらずんば容易に通行する能は
 ず、尤も主府若くは郡邑の附近に至らば道市廣潤にして我國の國道にも優るものありと雖ども猶廣狹
 するもの多きと共に多方面に新生面を開き氣候も亦自然的に變遷するに至るは尙れざる處なり

第六節 氣候

國中の氣候同じからずして冬は酷だ寒く夏は至て暑し、三寒四温とは此國の氣候を評言せしものにし
 て其不順なること初航者に一驚を喫せしむ、日本海に濱する咸鏡、江原兩道の沿岸及び黃海に濱する
 平安、京畿、黃海三道の沿岸は冬期積雪尺餘に至り河海は氷結して舟楫を通せず、全羅、慶尙
 の三道は氣候中和と稱せらる人も寒暖常なく夏時雨多しと云ふ、暑寒の爾かく激變あるが爲めに農植
 物は自然に繁茂し毒虫は餘り多からず、惡疫の如き比較的に稀なり、然れども年々歳々外國人の移住
 に至て亦一層其方を滅じ蔚山以北の東海に至ては殆んど皆無と云ふも不可なきに似たり、之れに反し
 て京畿道仁川の如き其差實に三十三尺餘にして千朔の際は一目十餘里只泥を見て水を見ずと云ふ

勞は午睡三分は喫煙に其日を徒費し自ら耕し自ら食ひ錢あれば盡くれば働き疲腹の慾を充すの外殆んど他念なきは國民の風習と謂ふ可し

風俗は千種萬態一々名狀すべからず而して風俗の評を言ふは本書の目的にあらざるが故は只だ一二著名のもの若くは本書の目的に關係厚きものよみを簡單に叙述すべし、此國の種族には兩班常漢及奴隸の區別あるなり兩班とは文武兩班と云ふの謂にして即ち貴族を指すなり常漢とは平民と云ふが如し、而して此國の勢力は貴族にあるは論なし平民に至ては全く奴隸同様にして何等の權力もなし只政府の命令に依て租税を納入するに過ぎず、奴隸に至ては殆んど人間視せざるなり

服裝は一定して四時白衣を着く、中には紫赤紺等を用ゆるものあれども稀なり、冠も亦一定せりと雖ども階級に依りて區別せらる

食物は米麥飯及魚鳥蔬菜獸肉の類にして割合に滋養物を^④用

住居は燠陋にして皆草藁なり瓦を用ひ材木を使用して稍々見るべきの構造あるは官衙又は寺院若くは富豪にあらざれば能はず大半は殆んど不潔極まれる茅屋なり亦特に便所等の設けなきを以て何れも室内に眞鍮製又は陶器製の便器を置き主客對座の時と雖ども室内に於て小便を放つ習慣あり

言語は各道同一なりと雖ども語調の變異詭言は多少相違せり、其他婚姻、葬禮等種々奇異の状態の記すべきものありと雖ども其は煩雜に渉るを以て之れを其種の著書に譲りて茲には省くこととせり

夫れ日韓兩國地理上の關係彼の如く、朝鮮の國土斯の如し、此國家に對する我國國際關係は如何ん

第九節 日韓の國際關係

日韓兩國の民族的關係は我開關前後より既に乘に發生したることは事實なり、然れども國際的關係に一變せしは彼の所謂三韓（新羅、高句麗、百濟）時代にありしなり、我邦にては崇神天皇の朝より垂仁天皇の朝に成立せしは故ふべからざる事實なりとす、崇神天皇の六十五年、任那王其臣蘇那馬叱智を使者として我朝に遣はし奏請して曰く、臣の國地方三百里、人民亦富饒、新羅國と相争ひ彼我攝治する能はず兵戈相次ぎ民生を安んぜず、臣將軍に請ひ此地を治めしむ、即ち貴國の部と爲さんと、蓋し任那の意は我邦をして此地を取らしめ以て新羅の勢力を摧かんとなり、我直ちに之れを答れ援兵を遣はして鎮定し日本府なるものを設立して任那を彌摩那國と名けぬ、之れ兩國初めて國際關係の生じたる淵源とす

其後神功皇后、韓土の大部分の空く皇化せざるのみならず新羅の如きは九州山陽の邊境を犯す數々に至りしより征韓の軍を起し自ら男装して其將となり新羅を初め高麗百濟を征服して朝鮮を我が附庸とし年々朝貢怠ることなからしめぬ、年を閱する實に四百六十二年唐は新羅に鎭林大都督府を置き新羅王を以て其大都督に補する等の事ありて韓土は全然我れに背き日韓の交通漸く疎せらるゝに至りたり